

## 사상 최강의 독재자

세계 인명사전 2020년판 기재. 존 디스. 1990년 2월 1일 USA 캔터키주 루이빌에서 태어나다. 아버지는 허베이 R(술집 경영), 어머니는 엘리자베스. 1996년에서 2004년까지 루이빌 공립 국민학교를 다녔으며, 14세에 집을 나와서 핀보이 및 급사로 일했음. 2008년 앨라배마주 버밍엄에서 매춘행위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형을 받았음. 2009년 합중국 육군에 입대. 2009~2011년 미중전쟁에 사병으로 참가. 2011년 파나민트 산의 싸움에서 행방불명되었다는 말이 전해짐. 2012년의 혁명을 지도함. 2012년 8월 5일 합중국 대통령이 되었음. 2013년 4월 10일 북아메리카 전국의 독재자가 되었음. 2013년 6월 10일 사망. 향년 23세.

토치카의 콘크리트 벽은 아직 축축했다. 존 디스는 기관총의 조준기 너머로 총안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벽을 만져보았다. 그리고 황인종의 탄환이 뚫지 못할 정도로 굳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질은 연기가 파나민트 산 기슭의 언덕을 덮고 두텁게 드리워져 있었다. 토치카 뒤 경사면에서는 미군의 대포가 은은한 포성을 울리고 있었다. 1마일도 안되는 저쪽에서 이에 응전하여 중국군이 이동포로 반격해 왔다.

존 디스는 불꽃 튀기는 전장 속에 있었으므로 전황을 볼 수도 없었고, 또 전투는 지금이 중대한 고비라는 것을 알 수도 없었다.

전쟁 초기에는 대륙간 탄도탄이 양국의 주요 도시들을 대부분 재로 만들었다. 그래도 승패의 결말은 혼돈되어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마침내 중국군이 캘리포니아 침입을 고비로 하여 태평양으로 쫓겨나 전쟁은 종말을 고한 것이다.

“왔다!”

존 디스는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전우의 귀는 바로 옆에 있었으나, 큰 소리로 악을 쓰지 않으면 들리지 않았다.

“다음 탄창을 준비하라! 놈들을 막아야 한다!”

놈들을 막는다——그 말은 노래의 후렴 문구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것이 적을 맞아 싸우기 위해 충분히 준비된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배후에는 죽음의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다. 만일 미군이 전투에서 패배하여 이 불모의 황무지까지 밀려나게 된다면 이 골짜기는 그 이름에 걸맞게 될 것이다. 거리낄 것 없는 황무지에서 미군들을 잡초처럼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3일 동안이나 파나민트 전선은 유지되어 왔다. 하늘에서 육지에서 우박처럼 퍼붓는 탄환을 맞으면서도 전선은 고수되었다. 적의 공세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백 미터나 밀고나갔을 정도였다. 이 토치카는 새로운 전초 진지의 하나로, 어젯밤을 틈타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검고 추악하게 생긴 것——거대한 탱크의 앞부분이 화염과 안개를 가르고 나타났다. 존 디스는 접근해 오는 괴물에 대해서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뜨거워진 기관총의 개머리판을 놓았다. 그리고 팔꿈치로 전우를 쿡쿡 찌르며 소리쳤다.

“전차가 지뢰 위를 통과한다! 스위치를 넣어라, 빨리! 지금이다!”

폭발한 지뢰의 무서운 진동 때문에 엎드린 그들의 몸 밑에서 땅이 흔들렸다. 거대한 전차를 순식간에 고철로 만들어버린 지뢰의 폭풍 때문에 귀가 멍하고 일시적으로 거의 장님이 되다시피한 그들에게는 급강하해 오는 적군 비행기의 비명과 비슷한 폭음이 들리지 않았다.

적군 비행기가 투하한 폭탄은 그들의 토치카에서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폭발했다. 이미 토치카는 형태도 없었다.

두 사람 다 당연히 즉사할 것이었지만, 한 사람은 모면했다. 생명이란 끈질긴 것이다. 지금까지 존 디스라는 이름으로 살아 있던 물체가 몸부림을 쳤다. 한쪽 팔은 땅 위에서 구르고 또 한쪽은 날아가버렸다—몇 미터 밖에 떨어져 있는 기관총의 개머리판을 찾으려는 듯이 다섯 개의 손가락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분디 코가 달려 있던 곳에는 피투성이의 구멍이 나 있고, 그 위에 한쪽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크게 벌어져 있었다.

이미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갈기갈기 찢어진 물체가 다시 몸을 비틀며 기어가기 시작했다.

적군기는 다시 급강하하여 덮쳐왔다. 기관총의 탄열이 무서운 파괴력으로 도랑을 파며, 기어가고 있는 물체의 무릎 위를 지나 두 다리를 절단했다. 손가락이 단말마의 경련으로 대지를 잡았다가 천천히 펴졌다.

존 디스는 죽었다. 그러나 그가 죽는 바로 그 순간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그의 갈기갈기 찢어진 몸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것이다. 세계 인명사전의 편찬자들이 존 디스의 항목에 북아메리카의 독재자로서 8개월이 조금 지난 뒤 23세로 죽었다고 기재했을 때, 그들은 이 이야기 속의 이 부분을 빠트렸던 것이다.

공간을 떠다니며 흔들리고 있던 이름도 없는 하나의 ‘실존’이 딱 멎었다. 뭔가 존재할 리가 없는 것을 탐지한 것이다. 이 실존을 임시로

스트레인저(미지의 것)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것은 차원을 하나 거슬러 올라갔다. 여기가 아니라 다른 차원이다. 그렇다, 거기다. 그곳은 물질로 구성된 차원이었으나, 스트레인저는 그것이 의식의 파도를 방사하고 있는 것을 탐지했다. 이것은 일종의 역설, 완전한 모순이다. 의식의 차원과 물질의 차원은 존재하지만, 양자가 일체가 된 차원은 이제까지 없었다.

스트레인저——우주에 떠도는 비물질, 의식의 초점, 한 개의 실존——는 물질 차원의 소용돌이 별무리 한복판에서 정지했다. 모든 물질 차원과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 존재하지 않을 곳에 의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질적인 의식이다. 스트레인저가 탐지해낸 한에서는 그 의식이 물질과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완전히 모순된다. 의식은 의식, 물질은 물질, 양자가 일체가 되어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식 파도의 방사는 아주 약했다. 스트레인저는 자기의 시한운동을 감소시킴으로써 그것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거기서 방사력이 최대점을 넘어설 때까지 서서히 시한운동을 감소시켰다가 다시 최대점으로 돌아갔다. 방사는 이제 분명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별은 이미 회전을 멈추고 원을 그리는 무궁한 커튼 속에 조용히 걸려 있었다.

몽롱하게 의식을 방사하는 별을 향해 스트레인저는 천천히 움직이면서——사고의 초점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별의 제3혹성이 목표점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스트레인저는 천천히 다가가 자신이 그 혹성을 감싸는 대기의 바깥쪽에 와 있음을 느꼈다. 다시 스트레인저는 멈춰서서 그의 초능력이 아래쪽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 놀라운 의식과 물질의 결합체를 분석하여 이해하려고 했다.

아래쪽에는 몇 백만, 몇 천만의 실존이 있었다. 이 작은 천체에는 스트레인저가 넘어온 우주의 모든 차원보다 더 많은 실존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존재는 각기 유한한 작은 물질 속에 갇혀 있었다.

대체 어떤 우주의 돌연변이가, 어떠한 천체 사이의 변화가 이처럼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냈을까? 이런 실존도 그 무수한 의식 차원 속에서 생긴 것일까? 알려지지 않은 이유와 방법에 의해 이 사고를 절단하는 의식과 물질을 부당하게 결합시킨 것일까?

스트레인저는 지각을 한 개의 실존 위에 집중하려고 했으나, 그 흑성의 표면에서 무수하게 방사되어 오는 의식은 너무도 여러 가지여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스트레인저는 바깥쪽 기체를 통하여 그 흑성의 굳어진 표면으로 내려갔다. 잡다한 사고의 혼란 상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 실존 가운데 하나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깨달은 것이다.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기체는 질어졌다. 그것은 간헐적으로 몇 번이나 계속되는 진동에 의해 묘한 상태로 이끌려가고 있는 듯했다. 육체를 지니지 않은 실존에게 소리며 청각이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면, 스트레인저는 그것이 폭발의 음파임을 알았을 것이다.

처음 만났을 때 오염된 기체이거나 또는 그것이 변형된 것이라고 스트레인저가 생각한 것은 다량의 화약 연기였다. 보지 않고 사물을 탐지하는 존재에게는 상공의 맑은 공기와 비교하여 그곳의 공기가 특별히 흐렸다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스트레인저는 고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것이 그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고체의 표면과 거의 동일한 표면상에 있음을 지각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평면 주위에서 혼돈된 신비로운 의식의 방사가 떠돌기 시작했다.

그러한 방사원의 하나가 바로 그의 옆에 있었다. 스트레인저는 자기의 사고를 차단하면서 다가갔다. 그 실존물이 내뿜는 의식의 방사는

상당히 뚜렷해졌다——그러나 다시 애매해졌다.

격렬한 고통이 그 실존물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 의식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같은 혼란이 생겼다는 사실을 스트레인저는 몰랐다. 고통은 의식과 물질이 결합된 데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스트레인저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접근하여 고체에 부딪쳤다. 이번에는 표면의 형태가 고체와는 조금 다른 것이었다. 바깥쪽은 진흙 같은데, 뭔가 끈적끈적한 것으로 젖어 있었다. 그 바로 밑은 탄력있는 층이었으며, 이 층이 그 밑의 탄력이 적은 층을 덮고 있었다. 그 아래에 부드럽고 이상한 것, 기묘한 회선상의 것이 있었다.

스트레인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의식의 방사원에 좀더 가까이 접근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방사는 서서히 약해져가고 있었다. 아무래도 일정한 장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부글거리는 회선상의 여기저기서 나온 모양이었다.

이 이상한 현상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스트레인저는 천천히 이동했다. 일단 내부로 침투해 보니 물질 그 자체도 기묘한 것이었다. 그것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와 세포 사이를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 기묘한 물질이 경련을 일으켰다. 스트레인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의식 방사가 갑자기 흔들린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관찰하고 있던 실존이 사라진 것이다. 아무것도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완전히 소멸해버린 것이었다.

스트레인저는 당황했다. 그것은 의식과 물질이 부당하게 결합되어 있는 이 진기한 혹성에서 그가 만난 가장 놀라운 일이었다. 죽음——몇 번이나 본 자에게도 이것은 알 수 없는 신비이지만, 그것이 실존의 종말이 되리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자에게 있어서는 더욱 알 수

없는 신비였다.

그런데 한층 더 놀라운 것은 그 모순된 의식이 소멸된 순간에 스트레인은 갑자기 어떤 힘이 자기를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그는 사실 공간적으로 얼마쯤 끌려갔다. 갑자기 생긴 진공 속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듯 그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었다.

우선 스트레인은 공간적으로, 그리고 나서 시간적으로 움직이려 했으나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질적인 실존을 알아내려고 들어간 이 불가해한 물체에 갇히고 만 것이다! 의식의 존재인 스트레인이 한 개의 물리적 물체에 빨려들어간 감히 버려 빠져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한 감정과는 인연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스트레인은 자기가 놓인 상태를 냉정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지각의 자리>를 신축시키면서 지금 갇혀버린 이 사물의 정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길쭉한 원통형의 그로테스크한 것이었다. 한쪽 구석에 관절이 달린 길다란 것이 앞으로 뻗어나왔고, 원통형의 다른 한쪽 끝에 그보다 짧은 돌기가 두 개 나와 있었다.

그중 가장 기묘한 것은 원주 맨 꼭대기에 달려있는 짧고 탄력있는 계란형의 것이었다. 지금 스트레인은 이 계란형의 상단 가까이에 의식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옥을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기분 나쁘고 착잡한 신경과 혈관과 기관의 목적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때 그는 가까이에서 다른 여러 가지 실존의 방식을 느끼고 <지각의 자리>를 좀더 확대했다. 수수께끼는 점점 더 늘어날 뿐이었다.

아무렇게나 부서진 존 디스의 몸 옆을 지나 병사들이 전쟁터를 포복하여 전진하고 있었다. 스트레인은 그들을 관찰하고 나서야 서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갇혀버린 이 육체는 불완전하지만

그들의 것과 거의 같다는 것, 그리고 이들 육체가 많은 제약 아래 지금 그가 갇혀 있는 것처럼 내부에 갇혀 있는 실존에 의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혹성의 굳은 표면에 고정되면서도 이들 육체는 평면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다. 스트레인저는 지각을 존 디스의 몸에 되돌려주고 그의 몸을 움직일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한쪽을 기어서 지나쳐간 물체들을 관찰한 결과, 스트레인저는 매우 참고가 될 만한 어떤 원리를 알아냈다. 다섯 개의 짧은 돌기가 달린 그것은 <팔>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또 한쪽 끝에 달려 있는 것은 <다리>였다. <머리>는 그가 갇혀 있는 계란형의 것이었다.

방법만 알면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시험해 보았다. 잠시 뒤 팔의 근육이 꿈틀꿈틀 움직였다. 그 다음에 차츰 그 방법을 습득해 나갔다.

이윽고 존 디스의 육체가 하나의 팔과 끝이 절단된 두 개의 다리로 전우들이 기어가고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서투르게나마 기기 시작했을 때, 스트레인저는 자신이 이 혹성에서는 불가능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 육체가 실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유능한 의사라면 누구나 아무런 주저 없이 그 육체가 이미 사망했다고 단언했으리라는 것을 그로서는 알 도리가 없었다. 이미 썩어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었지만 스트레인저의 의지가 굳어진 근육을 움직였다. 전에는 존 디스였던 부서진 고깃덩어리가 중국군의 진지를 향해 질질 끌려가듯 기어가고 있었다.

왕 리이는 포탄의 작열로 탄공이 생겨난 경사면에 배를 깔고 있었다. 그의 철모와 가스 마스크의 안경 윗부분만이 땅바닥 위에 나와 있을 뿐이었다.



몽게몽게 치솟는 화약 연기와 심한 포화 사이로 웅 리이는 미군의 토치카를 응시했다. 적이 반격을 개시했다. 그가 있는 이 탄공은 지금 미군의 탄막 밑에 있는 중국군의 최전선에서 약간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는 여덟 명의 전우와 함께 최전선을 보강하기 위해 참호에서 1백 50미터나 전진해 온 것이다. 우박처럼 쏟아지는 탄환에 다른 여덟 명은 전사했다. 웅 리이는 충실한 병사였으나 목숨을 걸고 30미터를 전진하기보다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편이 상관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웅 리이는 화약 연기에 싸인 저쪽을 응시하며 기다렸다. 전방의 그 수라장 속에서 누군가가, 아니면 무엇인가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것일까?

12미터 앞쪽에 화약연기 사이로 흐릿하게 무언가 접근해 오고 있는 물체가 보였다. 아직 확실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빗발치는 포탄 사이를 기어서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너털너털 찢어진 미군의 군복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가스 마스크도 철모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웅 리이는 개인장비 속에서 가스수류탄을 꺼내어 천천히 호를 그리듯 높이 상대방을 향해서 던졌다. 수류탄은 기어오는 물체의 앞쪽 1미터도 안 되는 곳에서 떨어졌다. 가스가 흰 버섯처럼 몽게몽게 치솟았다. 한 모금만 마셔도 즉사하는 독가스이다.

웅 리이는 비정한 웃음을 띠고 이제 되었다고 스스로에게 타일렀다. 가스 마스크를 하지 않은 적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흰 가스는 서서히 화약 연기에 뒤덮인 대기 속으로 흩어져갔다.

그러나 웅 리이는 놀라서 숨을 삼켰다. 적은 아직도 기어오고 있지 않은가! 죽음의 흰 연기를 빠져나온 것이다. 지금은 아까보다 더 접근해 와 있었으므로 웅 리이에게는 상대방의 얼굴 비슷한 것이 보였다. 전에는 몸뚱이였다고 생각되는 소름끼칠 것 같은 갈기갈기 찢어

진 고깃덩어리와, 이 세상 사람으로는 볼 수 없는 움직임.

명치 끝 언저리에 얼어붙을 것 같은 공포가 느껴졌다. 그래도 아직도 망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 물체가 자신 쪽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할 수 없다면, 자기 머리가 어떻게 되고 말 것 같았다.

공포에 질린 나머지 빗발치는 총탄도 잊고 웅 리이는 후다닥 일어나서 이미 3미터 지점까지 기어온 괴물을 향해 무거운 군용 자동권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한 발, 두 발, 세 발——탄환이 명중하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탄창이 비기도 전에 포탄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웅 리이는 탄공으로 뛰어들려고 했으나 한발 늦었다. 몸의 균형을 잃고 벌렁 쓰러졌을 때 포탄이 작열했다. 탄의 파편이 웅 리이의 철모에 맞아 튀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그는 무사했다.

철모에 받은 충격으로 그는 정신을 잃었다.

의식을 되찾을 때 웅 리이는 탄공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맨 처음 우선 그는 전투가 이제 끝난 것인가, 아니면 이동한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탄공 주변에 감도는 화약 연기와 몸 밑에서 흔들리고 있는 대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고막이 찢어진 웅 리이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들었다. 싸움의 울림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서 지껄이고 있는 듯한 조용하고 침착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아무 감정도 없이 물었다.

“너는 무엇인가?”

그것은 중국어로 지껄이고 있는 것처럼 들렸으며 역시 기분이 나쁜 것만은 변함이 없었다. 그 목소리가 〈누구〉냐고 묻지 않고 〈무엇〉이냐고 묻는 점이 특별히 이상했다. 웅 리이는 가까스로 일어나 앉아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는 아까 그 적이 자기 바로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아니면 적어도 전에는 사람의 머리였던 것으로 보이는 물체였다. 공포에 떨며 웅 리이는 그것이 아까 자기를 향해 기어오던 괴물의 머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바로 전에 떨어진 포탄이 지금까지 기어온 괴물을 산산조각으로 만든 뒤 머리만 이곳까지 날려버린 것이다.

그것은 이미 완전히 숨이 끊어져 있었다.

‘아니면……?’

다시 웅 리이의 마음 속에 그 조용한 말이 들려왔다.

“너는 무엇인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웅 리이는 그 말을 한 것이 옆에 무참히도 날아와 뒹굴고 있는 부서진 머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웅 리이는 비명을 질렀다. 가스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한 번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탄공가로 기어올라가 달리기 시작했다.

열 발자국쯤 갔을 때 그의 발 밑 바로 앞에 천 파운드의 대형 폭탄이 떨어져서 폭발했다. 흙과 암석이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가 우수수 쏟아져내려왔다. 그리고 쏟아져내려온 흙과 암석은 새로 생긴 탄공 주위의 작은 탄공들을 대부분 완전히 메워버렸다.

전에는 존 디스의 육체의 일부였으며 지금은 이질의 실존을 가두어 놓은 감옥인 그 끊어진 머리도 그중 하나의 탄공에 2미터의 흙을 뒤집어쓰고 묻혀버렸다. 스트레인저는 이제 그 물질과의 새로운 인연을 끊지 못하고, 이 차원의 시류를 타고 떠도는 이외에는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한 시간 전까지도 순수한 의식의 존재였던 스트레인저는 새로운 생존 양식의 가능성과 한계를 냉정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에라스무스 핀도리는 그 불후의 명저 《아메리카 역사》 안의 제1권을 할애하여 독재자 존 디스와 미중전쟁이 성공리에 끝난 직후 미국에 있어서의 제국주의 부흥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핀도리도 역시 현대의 대부분의 역사가와 마찬가지로 디스라는 인물에게 종종 부과되어 온 신화적인 전설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낱 이름없는 병사였다가 홀연히 몸을 일으켜 두 번 다시 없을 폭정으로 지상 최대의 정부를 장악했다는 사실이 존 디스에 관한 미신적인 전설을 낳게 되었음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존 디스가 한 병사로서 이렇다할 공적도 세우지 못하고 미중전쟁에 참가했다는 일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가 뒤에 권력을 잡게 되면서부터 자기에 대한 기록을 대부분 없애버린 것은 아마 그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아니면 그러한 기록 안에 뭔가 바람직하지 못한 오점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던 파나민트 결전에서 행방불명된 뒤 다음해 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소식불명이었다는 이야기는 아마 진실이 아닐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2012년 봄, 존 디스는 흙투성이의 벌거벗은 몸으로 파나민트 계곡의 농가에 찾아와 먹을 것과 옷을 얻어서 당시 재건 중이었던 로스엔젤리스로 향했다고 한다.

이와 다름없이 어이없는 이야기는 그가 불사신이라는 전설이다. 자객의 총탄이 수십 번이나 그의 몸을 꿰뚫었는데도 그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와 대항하여 싸운 미국의 진정한 애국자들이 마침내 그를 쏘아죽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불사신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그리고 로즈 보울에 있어서의 그 무서운 광경은 당시 수많은 목격자에 의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적이 만들

어낸 나락식 트릭이었다.”

스트레인저는 침착하고도 세밀하게 자기 감옥의 구조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끈질기게 그 열쇠를 찾았다.

탐구하는 도중 그는 존 디스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들추어냈다. 그러자 갑자기 한편의 에피소드가 마치 스트레인저 자신의 경험인 듯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만 안을 통과하는 한 척의 배를 타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후리후리하게 키가 큰 사나이가 한 사람 서 있었다. 그 사나이는 디스의 아버지로, 이것은 그가 7세때 뉴욕으로 여행했을 때의 한 장면이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아가야, 저것이 엘리스 섬이란다. 이민 온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지. 외국 놈들이 나라를 못쓰게 만들고 있단다. 순수한 미국 사람은 이제 일자리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유럽을 지도에서 말살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안된단다.”

단순한 일이지는 했지만 이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스트레인저에게 그 기억 자체를 해명하는 암시를 가져다주었다. 작은 배란 어떤 것인가! 유럽이란 어떤 곳이며 어디에 있는가? 미국인이란 무엇인가?——그는 이런 것들을 알았다. 그리고 미국이 이 혹성 위에서 가장 우수한 국가이며, 그 이외의 모든 나라는 다 열등한 국민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그리고 미국인 중에서도 우수한 사람이란 본디부터 이곳에 살고 있던 백인만을 가리킨다는 것도 알았다.

스트레인저는 다시 탐색을 계속하여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러한 과거의 기억과 현재 간혀 있는 이 세계의 상황을 관련시켜 보려고 했다. 그로서는 근본적으로 알 도리가 없었지만, 그

것은 기묘하게 비뚤어진 광경이었다. 그것은 우선 편협된 초국가주의적인 견해였으나, 그보다 더 나쁜 일이 몇 가지 있었다.

스트레인저는 한 병졸에 불과했던 존 디스의 증오와 편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화했다. 더구나 그 증오와 편견은 과격하고 또 수가 많았다. 이 기묘한 세계에 대해 이와 다른 개념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존 디스의 기억이 그대로 스트레인저의 기억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증오와 편견도 스트레인저 자신의 것이 되었다.

스트레인저 자신은 잘 몰랐지만, 그는 육체의 감옥보다 더 좁은 편견의 감옥으로 헤치고 들어간 것이다. 그는 강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은 사상 속에 얽혀들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여기에 강인한 실존이 지니는 힘센 의지와 존 디스의 좁은 신념과 편견이 기묘하게 융합되어 하나의 정신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흐리고 비뚤어진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단연코 손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워싱턴에 있는 얼빠진 녀석들을…….”

그——또는 존 디스는 말했다.

“……쫓아내야 한다. 만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렇다. 스트레인저는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았다. 이 나라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우수한 것이다. 그러나 열등하고 못된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 나라들을 멸망시킬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따끔한 맛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황인종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몰살시키고, 흑인들은 아프리카라는 본디의 토지로 내쫓아야 한다. 백인 미국인 중에서도 분수에 맞지 않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 그런 돈을 다 몰수하여서 존 디스 같은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그렇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자들에게 진로를 일러줄 정부이다. 그리고 온 세계에 그 진로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처럼 알아냈다 하더라도 우르르 허물어져가는 한 조각의 물체에 파묻혀 있으면 이런 중대한 사명을 이행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그는 깨달았다.

그리하여 스트레인저는 자신이 간혀있는 물체의 구조를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의 지각을 원자나 분자와 같은 크기까지 축소하여 조사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주위의 흙 속에 존 디스의 육체를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원소들이 다 갖추어져 있음을 알았다. 존 디스의 불완전한 신체를 최초로 탐색했을 때의 기억을 바탕으로 그는 유기 화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존 디스의 기억을 더듬어서 잃어버린 육체의 각 부분의 원형을 알아내자 그는 작업을 시작했다.

흙 속의 화학분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따뜻한 기운은 분자 작용의 속도를 빨리 해주었다.

존 디스의 머릿부분에 서서히 새 살이 붙기 시작했다. 머리, 두 눈, 그리고 목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간이 걸렸으나 영원한 생명을 갖는데 시간이 무슨 상관이었는가?

다음해 이른봄 어느 날 저녁 무렵, 알몸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형태를 갖춘 사람의 모습을 한 것이 대지를 헤치고 모습을 나타냈다. 분자 작용에 의해 흙이 부드러워졌으므로 헤치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한동안 땅바닥에 누워서 호흡하는 법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시험적으로 각 부분의 근육과 감각기관을 움직여보았으나, 이윽고 서서히 제대로 자리가 잡혀 자신을 갖게 되었다.

글렌델 부흥계획 공사 현장에서의 일이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한 사나이가 짐꾸리는 나무틀 위로 올라가서 연설을 시작하자 한 무리의 노동자들이 재미있다는 듯이 모여들었다.

“여러분!”

그 사나이는 소리쳤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참고 견디어야 합니까?”

제복을 입은 경관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만, 그만하십시오!”

경관은 명령했다.

“그런 짓을 하면 안되오. 비록 집회 허가를 받았다 해도 지금은 노동 시간이오. 일을 중단시키면——.”

“경찰 양반, 당신은 이곳과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만족하고 있소?”

올려다보는 경관의 눈이 나무들 위에 있는 사나에게 고정되었다. 한순간 그는 심신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나이의 말이 올바르고, 이 사나이야말로 자기가 따라야 할 지도자임을 깨달았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나의 이름은 존 디스요.”

나무들 위의 사나이는 말했다.

“나의 이름을 들어본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는 듣게 될 거요. 알겠소? 나는 한번 해볼 참이오. 처음부터 나의 동료로서 가담할 생각이 있다면 그런 뱃지는 떼어버리시오. 그러나 권총은 놓지 마시오. 머지않아 필요하게 될 테니까.”

경관은 뱃지를 만지더니 핀을 빼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마지막 날은 2013년 6월 14일. 바야흐로 그날 아침 북아메리카의 수도 로스앤젤리스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으나, 정오부터 태양이 짹 짹 비치고 대기는 산뜻했다.

애국자들의 작은 그룹을 이끄는 지도자인 로버트 웰슨은 새 파나마라 빌딩의 창문으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재건된 로즈 보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 존 디스를 열광적으로 지지하



는 군중 속에 참가하지 않았다. 로버트 웰슨이 내려다보고 있는 창문 바로 밑의 마루 위에는 마셜 망원 조준기가 달린 고성능 라이플이 놓여 있었다.

보울의 연단에는 북아메리카의 독재자 존 디스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연단 둘레에는 제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고, 청중 속에도 흩어져 있었다. 마이크로폰이 머리 위에 매달려 있어 스피커가 독재자의 목소리를 보울은 물론 아득히 먼 곳까지 전해주고 있었다. 방 안에 있는 로버트 웰슨과 그 동료들의 귀에도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때는 무르익었소. 바야흐로 모든 준비가 다 된 것이요. 미국 국민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일어섭시다! 그리고 바다 저쪽 사악한 나라들을 지상에서 몰아냅시다!”

환성이 성난 파도처럼 일어났다.

그때 로버트 웰슨은 등 뒤의 문을 날카롭게 세 번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가서 문을 열었다. 키 큰 사나이와 여원 소년이 들어왔다. 머리가 이상하게 크고 몽롱하니 커다란 눈을 지닌 소년이었다.

웰슨은 말했다.

“무엇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왔지? 이 아이는——.”

키 큰 사나이가 입을 열었다.

“디스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자네도 알겠지, 웰슨? 우리가 쏜 탄환을 맞고도 끄떡하지 않았던 일을 기억하지? 피츠버그에서 놈에게 탄환이 명중되는 것을 나는 이 눈으로 직접 보았었네. 그런데 이 천리안 소년이—— 어쩌면 천리안이 아니라 정신감응력 같은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네—— 디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고 있네. 맨 처음 디스를 보았을 때 이 아이는 경련을 일으켰지. 디스의 정체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싸워 이길 수 없지 않겠는가?”

웰슨은 어깨를 움츠렸다.

“그렇지도 모르지. 어쨌든 그 일은 자네에게 맡기네. 나는 남 총알을 먹여주는 일에 전념하겠네.”

웰슨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 창가로 돌아갔다. 그리고 한쪽 무릎을 꿇고 창틀을 들어올린 다음 왼손을 라이플 쪽으로 뻗었다.

“자아, 간다!”

웰슨은 말했다.

“탄환을 빗발처럼 퍼부으면——.”

존 디스의 가장 저명한 전기를 손에 넣은 맥러핀은 전기를 메우고 있는 수많은 전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피하고 있지만, 디스가 권력을 장악한 아리송한 일면은 인정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가 암살되는 순간 합중국을 장악했던 광기있는 그의 모습은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의 독재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몇몇 진정한 애국자들의 기도가 실패로 끝났다면 21세기 초반의 역사는 사상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살육으로 물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에게 정복되었다면, 모든 나라는 멸망되든지 아니면 가차없는 착취를 당했을 것이다. 또한 그의 군대가 가지고 있던 우수한 장비로 미루어보아 전쟁의 피해가 방대한 범위에 이르렀으리라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온 세계를 정복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미국이었을 것이다. 존 디스가 단순히 미치광이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조국의 동포들 위에 군림하여 잡고 있던 광대한 권력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가 가장 초인적인 능력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미신은 거의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만일 그가 초인이었다면, 그것은 비뚤어진 초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마치 무지하고 편견적이며 독선적이고 모든 일에 편협적인 사람이 기적적으로 국민 대다수를 움직이는 능력을 부여받아,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모든, 또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자신의 편협된 증오를 심어주는 일이 가능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영향력을 모면한 소수의 사람들이 매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아마겟돈(세계의 종말에 벌어지는 선과 악의 대결전)에서 세계를 구해낸 것이다.

그를 죽음에 몰아넣은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수수께끼에 싸여 있다. 과연 새로운 무기에 의해 살해되었는가——그리고 그 무기는 목적을 달성한 뒤 곧 없애버렸는가——아니면 보울에서 웅성거리던 군중이 목격한 끔찍한 광경은 단순한 착각, 즉 비범한 마술사가 해낼 수 있었던 것인가? ——이것은 영원히 해명되지 않을 것이다.”

라이플의 총구는 창가에 놓여 있었다. 로버트 웰슨은 총을 고정시키고 그 망원 조준기를 떼어냈다.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려 있었다.

독재자의 목소리는 스피커에서 커다랗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우리들 운명의 날은 다가왔다!”

여기서 말을 끊고 숨을 돌린 뒤 독재자는 앞에 놓인 테이블로 다가갔다. 청중은 다시 박수를 보내려고 그가 말을 계속하기를 기다리며 조용해졌다.

로버트 웰슨의 등 뒤에 서 있던 키 큰 사나이가 서둘러 웰슨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아직 쏘지 말게.”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네. 보게, 저 천리안 아이를!”

웰슨은 돌아보았다.

그 여윈 소년은 의자에 쓰러진 채 온몸이 굳어져 있었다. 두 눈은

감겨졌고, 얼굴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입술을 일그러뜨린 채 소년은 지껄이기 시작했다.

“저곳에 두 개의 무엇이 있어요. 디스의 바로 옆에! 빛나는 두 개의 점 같은 것이 있어요. 다만 아저씨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와 아주 비슷한 점이 또 한 개 있어요——존 디스의 머릿속에요!”

점이 지껄이고 있어요. 두 개의 빛나는 점이 디스의 머릿속에 있는 점을 보고 지껄이고 있어요. 말이 아니에요. 말은 아니지만 나는 지껄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점이 묻고 있군요——‘왜 이런 곳에 있는가? 모습이 이상한걸. 아주 친한 존재가 되었군!’ 그 다음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나는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디스의 머릿속에 있는 점이 대답하고 있군요. ‘——여기 갇히고 말았어. 이 물체가 나를 놓아주지 않네. 물질과 그 속에 있는 기억이 나를 사로잡아버린 걸세. 구해주겠나?——’

두 개의 점은 한번 해보자고 대답했어요. 세 개가 한군데로 모여서 세 힘을 합하여 감옥에서 구출해 내려고 하는군요. 봐요, 저기 세 개의 점이——.”

분명히 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독재자는 아직도 입을 다문 채 테이블에 기대어 있었다. 몇 분이 지났으나 그는 꼼짝도 않고 지껄이고 있던 말을 계속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로버트 웰슨은 소년에게서 창문 쪽으로 눈을 돌렸다. 좀더 잘 보기 위해 그는 라이프의 망원 조준기를 떼어냈으나 손가락은 이제 방아쇠에 걸려 있지 않았다. 아마 이 천리안 소년은 정말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았는지도 모른다. 독재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말을 끊은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웰슨의 등 뒤에서 소년이 소리쳤다.

“빠져나갔다!”

마치 그의 두뇌 속 어딘가에 숨어 있는 승리감을 반사한 것처럼. 소년에게는 그 앉은 위치에서 창 밖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는 존 디스의 신체에 이번이 일어남과 동시에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웰슨은 숨을 헐떡였다. 그러나 그 소리는 보울의 군중 속에서 갑자기 일어난 비명과 질규에 묻혀버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청중들의 눈 앞에서 독재자의 몸이 사라지고 가느다란 한 가닥의 흰 안개가 공중으로 흩어졌다. 동시에 허물을 벗어 던진 듯 옷이 마룻바닥 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사라진 어깨에서 굴러떨어져 군중 앞 테이블 위에 드러난 소름끼칠 것 같은 〈물체〉는 금방 없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머리카락도 없고 눈도 없으며 거의 살점이 떨어져나가고 썩어버린 머리통이었다.